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4권 제1호, 2008년 3월
Korean J Women Health Nurs Vol.14 No.1, 5-11, March, 2008

Original Article

A Study of Spousal Support, the Demand for Health Education, and Quality of Life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Kim, Hye-Ja[1)]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okpo Catholic University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 건강교육 요구와 삶의 질*

김 혜 자[1)]

1)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spousal support, demand for health education, and quality of life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Methods:** A total of 120 subjects with adequate communication skills participated in this study from March 1, 2006 until January 30, 2007. Participants were female visitors at the Immigrant Consultation Center in "M City", "Y County" and "M County" in South Jeolla Province. The questionnaire used in this study consisted of a total of 42 item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10.2 to describe subjects' characteristics by frequency, and descriptive statistics, and to test group differences by t-test and ANOVA. **Results:** The highest demand for health education was exercise, and followed by stress management and diet. The level of spousal support for subjects was below average, and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was above the medium. The most difficult thing in their life was the difficulty in languag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quality of life by level of education, level of life satisfaction, number of childbirths, and age.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pousal support by level of life satisfaction. **Conclusion:** There is a need for a multidimensional strateg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spousal support for immigrant females in international marriages.

Key words : Immigrant, Women, Health education, Spouse, Quality of life

서 론

우리나라 농촌 지역은 노인인구가 인구 100명당 14.7명으로 도시에 비해 2배나 많고, 노총각들이 많아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여성들은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이러한 농촌 총각들과의 결혼을 기피하여 농촌 총각들이 일본, 중국, 미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등의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Hong, 2000; Kim, 2003; Lee, 2003; Yoon, 2004; Han, 2007b). 국제결혼 건수는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에 25,658건으로 2002년의 15,913건에 비해 61.2%가 증가하였다.

* 본 연구는 목포가톨릭대학교 교내 연구비지원을 받아서 쓴 연구임.
투고일: 2007. 10. 29 1차심사완료일: 2007. 12. 12 2차심사완료일: 2008. 1. 21 3차심사완료일: 2008. 2. 25 최종심사완료일: 2008. 2. 29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Hye-Ja*
Department of Nursing, Mokpo Catholic University
894-1 Seokhyun-dong, Mokpo, Chonnam 530-742 Korea
Tel: 82-61-280-5125 C.P.: 82-17-617-5487 E-mail: hjkim@mcu.ac.kr

이는 우리나라 총 혼인건수의 8.4%에 달하는 수이다. 이 중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이 19,214건에 달해 외국 남자와 한국 여자의 결혼 6,444건에 비해 3배나 많았다.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처의 혼인비율은 2005년에 비해 2006년에는 3.4%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이곳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만 이 지역에서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계약직 노동자와는 달리,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이 땅에서 터 잡고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은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우리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다. 자기가 태어나고 성장했던 모국을 떠나 모국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신적 고통이 따르는 상당히 힘든 과정(Han, 2007a; Lee, 2003)임에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다차원적인 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부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그들의 결혼생활이 성공적이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자의 개성을 지니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사랑하는 방식, 생각, 느낌이나 행동하는 것 등 다양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Kim, 1998), 부부의 사랑만으로는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한다(Lee, 1999). 부부관계의 원만한 지속은 결혼적응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부부간에 서로 만족하고, 갈등이 적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통합되어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때문에 배우자의 지지는 결혼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여성에게서 배우자는 심리적, 인격적 보완자로서 일생을 함께하는 또 다른 자신의 자아일 것이다(Spanier, 1976; Kim, 1998). 그러나 다양한 나라에서 이주한 여성들이 낯선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함으로써 남편과의 정신 신체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본다. 특히 결혼과 동시에 임신, 분만, 산욕기간을 거치면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다양한 건강문제가 발생되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는 복지 측면의 조사가 주로 이루어져 있고, 간호학적 관점의 연구나 건강과 관련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Lee, 1999; Hong, 2000; Han, 2002; Ann, 2003; Lee, 2003; Seol et al., 2005; Thanh, 2005; Yoon, 2004).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배우자 지지 정도와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건강교육 요구가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이 한국인의 가족구조에 잘 적응하여,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임신, 분만, 출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여성건강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개인이 인지적으로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평가하고,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정서보다 긍정적인 정서감정을 경험하고 있을 때 삶의 질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Kim, Kim, Kim, Lee, & Kim, 1998; Park & Lee,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삶의 질 정도를 살펴보는 것은 이들이 가족 구성원으로 적응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해 간호학적인 측면의 다양한 자료 수집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더구나 본 국제결혼을 한 경우 배우자와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 배우자의 지지, 여성건강과 관련된 건강교육의 요구와 삶의 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배우자지지, 건강교육 요구와 삶의 질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추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정도를 파악한다.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건강교육 요구를 살펴본다.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을 살펴본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 건강교육 요구와 삶의 질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연구 대상자는 전남 M시의 이주외국인 상담 콜센터를 방문한 여성과 Y군과 M군에 거주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 연구보조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동의한 여성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보조자는 각 군에 있는 이주여성 담당자와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콜센타 직원들로 구성되었다. 자료 수집 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연구보조자가 질문지에 대한 문항을 직접 설명을 한 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작성하기도 하고, 이주여성 중 한글을 읽고 쓸 수 없는 사람은 연구보조자나 남편의 도움을 받아 질문지에 직접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3월 1일부터 2007년 1월 30일까지로 최종 회수된 질문지 128개 중 응답이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102개의 질문지를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질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13문항, 여성건강과 관련된 건강교육 요구도 10문항, 삶의 질 8문항, 배우자 지지 10문항 등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여성건강과 관련된 건강교육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자가 여성건강간호학 교수 1인의 자문을 구한 후 여성 건강 중 생식주기와 관련된 내용 10문항으로 건강 교육을 받고 싶은 정도를 5점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교육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8이었다.

삶의 질 도구는 Campbell(1976)이 개발한 개인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를 Lee(1998)가 번역한 것으로 최근 경험에 대한 감정(삶에 대한 느낌)을 재는 총 8문항으로 되어 있다. 삶에 대한 느낌을 7점 척도로 이루어진 짝진 형용사의 어느 한 곳에 표시하게 하여 8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한 후 평균을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느낌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87이었다.

배우자 지지에 관한 도구는 Choi(1992)가 개발한 것으로 부인이 남편에게 받기를 원하는 물리적, 심리적, 인간관계적, 정보적 도움 등과 관계되는 내용 10문항을 각각 4점 척도로 문항별 점수를 모두 합한 후 평균을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지지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3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산과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교육요구정도, 삶의 질, 배우자 지지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른 배우자 지지정도와 삶의 질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여성이 31.7세, 남편은 41.6세로 부부간 연령의 차이가 평균 10세 정도였고, 결혼기간은 평균 4.9년, 월수입은 평균 146만원, 핵가족의 형태가 71.6%, 교육정도는 고졸이 44.1%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89.2%가 직업이 없었으며, 남편의 직업은 회사원이 39.3%로 가장 많았다. 국적은 필리핀 34.3%, 중국 25.5%, 베트남14.7%, 일본 12.7%, 태국 11.8%, 가나 1.0% 로 필리핀인이 가장 많았다. 현 생활에서의 어려운 점은 '언어문제'(53.9%)가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에 대한 편견'(13.7%), '경제적 어려움'(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의 만족정도는 '아주 만족하다' 14.7%, '조금 만족하다'가 28.4% 였으며, 대상자들이 생각한 건강상태는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6.1%로 가장 많았고, 건강에 대해서는 62.7%가 '관심이 많다'라고 응답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02)

Characteristics	Category	M±SD	f(%)
Age(years)	Wife	31.7±6.9	
	20-29		42(41.2)
	30 and over		60(58.8)
	Husband	41.6±5.6	
Length of marriage (years)		4.9±3.4	
Monthly income (\10,000)		146 ±61	
Type of family	Nuclear family		73(71.6)
	Extended family		29(28.4)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		21(20.6)
	High school graduate		45(44.1)
	College and above		36(3.3)
Job status	Unemployed		91(89.2)
	Employed		11(10.8)
Husband's job	Company worker		40(39.3)
	Agriculturist		30(29.4)
	Laborer		13(12.7)
	Public servant		8(7.8)
	Other		11(10.8)
Country of origin	Philippines		35(34.3)
	China		26(25.5)
	Vietnam		15(14.7)
	Japan		13(12.7)
	Taipei		12(11.8)
	Gana		1(1.0)
Current difficulties	Language		55(53.9)
	Prejudice against foreigners		14(13.7)
	Economic difficulties		13(12.8)
	Emotional		7(6.9)
	Food		5(4.9)
	Climate		4(3.9)
	Work related		4(3.9)
Life satisfaction	Very satisfied		15(14.7)
	Slightly satisfied		29(28.4)
	Average		48(47.1)
	Dissatisfied		10(9.8)
Health status	Healthy		47(46.1)
	Average		36(35.3)
	Not healthy		19(18.6)
Level of interest in own health	None		15(14.7)
	Average		22(22.6)
	Very interested		64(62,7)

2. 산과적 특성

대상자 초산연령은 평균 26.6세였고, 분만횟수는 없다가

24.5%, 2명이상 분만한 경우가 47.1%였으며, 동거 자녀수는 2명이 63%로 가장 많았고, 4명인 경우도 3.9%로 대부분 남편이 재혼이었다. 대상자의 48.1%는 피임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임을 하고 있는 대상자는 루프(16.6%), 콘돔(13.7%)등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70.6%에서 분만시 합병증이 없었으며 6.9%는 분만의 합병증이 있었고, 61.8%가 산전관리를 받았으며, 58.8%가 모유수유를 실시했다고 응답하였다<Table 2>.

<Table 2> Obstetr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02)

Characteristics	Category	M±SD	f(%)
Age of first pregnancy		26.6±4.3	
Number of childbirth	Never		25(24.5)
	1		29(28.4)
	2 or more		48(47.1)
Number of children living at home	None		7(6.9)
	One		18(17.6)
	Two		63(61.8)
	Three		10(9.8)
	Four		4(3.9)
Contraception	None		49(48.1)
	IUD		17(16.6)
	Condom		14(13.7)
	Sterilization		11(10.8)
	Oral contraception		4(3.9)
Complication of childbirth	Not applicable		25(24.5)
	No		72(70.6)
	Yes		7(6.9)
Prenatal care	Not applicable		25(24.5)
	No		14(13.7)
	Yes		63(61.8)
Nursing method	Not applicable		25(24.5)
	Breast feeding		60(58.8)
	Bottle feeding		19(18.7)

3. 건강교육 요구

대상자의 건강교육 요구를 살펴본 결과 운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스트레스, 식이, 부부의 성, 임신과 출산, 월경, 비만, 피임, 유방암관리, 금연에 대한 것이었다 <Table 3>.

4. 배우자 지지정도와 삶의 질의 차이

배우자 지지는 총 4점 만점에 1.8점으로 중간이하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 정도는 총 7점 만점 중에 4.8점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Table 4>.

<Table 3> Demand for health education (N=102)

Category	M±SD	Rank
Exercise	2.8±1.3	1
Stress	2.7±1.3	2
Diet	2.6±1.4	3
Sexual life	2.5±1.4	4
Pregnancy and birth	2.2±1.5	5
Menstruation	2.2±1.4	6
Obesity	2.1±1.9	7
Contraception	2.1±1.6	8
Breast cancer management	2.1±1.5	9
Quit smoking	1.6±1.5	10

<Table 4> Level of spous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N=102)

Variable	M±SD	Max. score
Item mean of spousal support	1.8±0.8	4
Item mean of quality of life	4.8±1.2	7

5. 특성에 따른 배우자 지지의 차이

일상생활의 만족정도에 따라 배우자 지지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2.39, p=.00). 즉 일상생활이 '매우 만족' 한 경우는 2.5점, '보통'인 경우는 1.8점, '약간 만족' 한 경우는 1.7점, '불만족' 한 경우는 0.8점으로 나타났으며, 일상

<Table 5> Difference in spousal support by subjects' characteristics (N=102)

Characteristics	f(%)	M±SD	t or F	p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or below	21(20.6)	1.6±1.0	1.51	.23
High school graduate	45(44.1)	1.9±0.8		
College graduate or more	36(3.1)	1.7±0.8		
Life satisfaction				
Very satisfied	15(14.7)	2.5±0.5	12.39	.00
Slightly satisfied	29(28.4)	1.7±0.7		
Average	48(47.1)	1.8±0.7		
Dissatisfied	10(9.8)	0.8±0.6		
Health status				
Healthy	47(46.1)	1.9±0.8	2.09	.13
Average	36(35.3)	1.7±0.7		
Not healthy	19(18.6)	1.8±0.7		
Number of childbirths				
Never	25(25.4)	2.0±0.7	2.50	.09
1 Child	29(28.4)	1.8±0.9		
2 Children or more	48(47.1)	1.6±0.8		
Age				
20-29	42(41.5)	1.9±0.9	1.78	.78
30 and above	60(58.8)	1.6±0.7		
Family type				
Nuclear family	73(71.6)	1.8±0.8	.71	.48
Extended family	29(28.4)	1.7±0.8		

생활이 만족한 경우 배우자 지지가 좋았다. 그러나 대상자의 학력(F=1.51. p=.23), 건강상태(F=2.09, p=.13), 분만횟수(F=2.50, p=.09)나 연령(t=1.78, p=.78), 가족형태(t=.71, p=.48)에 따라서 배우자 지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6.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

대상자의 학력에 따라 삶의 질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55, p=.03). 즉 '중졸이하'는 4.2점, '고졸'이 5.0점, '대졸이상'이 4.8점으로 학력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있었다. 생활 만족정도에 따라 삶의 질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7.94. p=.00). 즉 일상생활이 '매우 만족' 한 경우는 5.3점, '보통'인 경우는 5.0점, '약간만족' 한 경우는 4.6점, '불만족' 한 경우는 3.4점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이 만족할수록 삶의 질에 대한 느낌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분만횟수에 따라 삶의 질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82, p=.01). 즉 '분만을 하지 않은 경우'는 5.3점, '1명 분만한 경우'는 4.8점, '2명이상 분만한 경우'가 4.4점으로 분만횟수가 적을수록 삶의 질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삶의 질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32. p=.02). 즉 20대인 경우 5.1점, 30대인 경우 4.5점으로 대상자 연령이 어릴수록 삶의 질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상태(F=2.08, p=.13)나 가족형태(t=.71, p=.48)에 따라서는 삶의 질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 Difference in quality of life by subjects' characteristics (N=102)

Characteristics	f(%)	M±SD	t or F	p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or below	21(20.6)	4.2±1.3	3.55	.03
High school graduate	45(44.1)	5.0±1.1		
College graduate and more	36(3.1)	4.8±1.1		
Life satisfaction				
Very satisfied	15(14.7)	5.3±0.7	7.94	.00
Slightly satisfied	29(28.4)	4.6±1.3		
Average	48(47.1)	5.0±0.9		
Dissatisfied	10(9.8)	3.4±1.3		
Health status				
Healthy	47(46.1)	5.0±1.1	2.08	.13
Average	36(35.3)	4.5±1.3		
Not healthy	19(18.6)	4.7±0.7		
Number of childbirths				
Never	25(25.4)	5.3±0.8	4.82	.01
1 Child	29(28.4)	4.8±1.9		
2 Children or more	48(47.1)	4.4±1.3		
Age				
20-29	42(41.5)	5.1±1.1	2.32	.02
30 and above	60(58.8)	4.5±1.2		
Type of Family				
Nuclear family	73(71.6)	4.6±1.2	-1.53	.13
Extended family	29(28.4)	5.0±1.0		

논 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란 부부가 동일 국적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 소유자를 배우자로 선택하여 결혼을 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을 말한다. 한국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남성들은 국제결혼 정보회사를 통하여 중국, 동남아 등 여러 국가의 여성들과 결혼을 한다. 이들과 결혼한 남성들은 국제결혼을 한 후에 자신의 아이를 낳고 길러주며 시부모를 잘 모실 것을 바라지만,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남성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가하는 폭력과 인권 유린의 문제는 방송, 이주여성 상담 인권단체들에 의해서 전달되고 있다(Han, 2007a, 2007b; MBC, 2003). 국제결혼 가족은 살아온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적이 다른 이중문화가 존재할 수 있으며, 비슷한 성장문화의 배경을 가진 아시아인끼리의 결혼이라 할지라도 현재 정주하고 있는 곳이 한국이기 때문에 이중문화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언어, 생활관습, 종교, 문화는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가족 공동체에서 문화 간의 차이에서 오는 인식의 차이로 가정의 갈등 등 배우자와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기쁨과 함께 이국생활에 대한 적응에서 오는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Ann, 2003; Han, 2007b; Thanh, 2005).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고졸 이상으로 필리핀과 중국 국적 가장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은 낮았고, 부부간의 평균 연령 차이는 10살 이상으로 대부분의 남편들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피임을 하지 않아 가족계획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자들의 특성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Ann, 2003; Han, 2002; Hong, 2000; Lee, 1999; Lee, 2003; Seol et al., 2005; Yoon, 2004).

부부관계는 상호적인 것이고 배우자 지지가 삶의 질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Kim, 1998), 이들은 언어, 날씨나 문화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적응하기보다 임신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주 여성들은 서로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거나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고 한국의 가부장적인 구조에도 적응해야 하기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Kim, 2007; Thanh, 2005). 본 연구결과 이들 부부의 결혼기간은 평균 4.9년이고 이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은 언어나 외국인에 대한 편견 등이었다. 배우자 지지정도는 중간이하로 낮게 나타났고, 이들 중 일부는 결혼하자마자 임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제결혼에 관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주로 국제결혼과 부부갈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갈등의

원인은 주로 언어, 문화, 사고방식의 차이(Lee, 1997; Song, 1975), 언어와 사회문화적이 차이로 인하여 부부갈등이 나타났으며(Park, 1982), 의사소통 여부에 따라, 배우자 가족관계의 만족도, 전반적인 관계만족도, 성생활만족도, 경제수준이나 배우자와의 공유시간, 학력이 높을수록 부부갈등 요인이나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Lee, 1997; Thanh, 2005)고 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본연구결과 대상자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중간정도였으며, 건강교육 요구는 운동, 스트레스 관리, 부부의 성 등에 대한 교육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과정 중에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연구보조원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대상자라고 하지만 자료수집 도중에 남편이나 시부모가 합석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질문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남편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에 응답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질문지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배우자 지지와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이 만족할수록, 분만횟수가 적을수록, 대상자 연령이 어릴수록 삶의 질에 대한 느낌이 긍정적이었고 생활이 만족할수록 배우자 지지가 크게 나타났다. 학력, 건강상태, 분만횟수나 연령, 가족형태에 따라서 배우자 지지는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Lee (2003)와 Thanh(200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Ann(2003)의 연구에서는 20대가 30대보다 결혼 만족도가 더 높았고 종교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결혼기간이 3~5년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 다양한 가족관계 및 심리적 변인별로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추후 이들 변인과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때문에 농촌의 어려운 경제 현실과 배우자를 구하기 어려운 농촌 남성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고질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이질 문화생활에 대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주목할 만한 현상은 농촌인구가 지속적으로 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총각들이 결혼하기에 매우 어려워 외국인 여성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들을 위한 간호학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를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기초 자료 수집이 시급하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배우자 지지와 삶의 질을 높힐 수 있는 간호중재의 개발이 필요하고 다양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를 교육할 수 있는 건강교육자는 이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 론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 건강교육 요구와 삶의 질을 알아보기 위한 구조화된 도구를 이용한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부부간의 연령은 평균 10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월평균 수입도 낮은 편이고, 현 생활에서 언어문제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였다. 배우자 지지는 중간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며, 건강교육 요구는 운동, 스트레스관리, 식이, 부부의 성에 대한 요구 순으로 높았고 삶의 질은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질은 대상자의 학력, 생활의 만족 정도, 분만횟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대상자의 건강상태나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대상자의 생활 만족정도에 따라 배우자의 지지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력, 건강상태, 분만횟수, 연령,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해 삶의 질과 배우자 지지정도를 높일 수 있는 다차원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이들의 국적에 맞는 간호중재를 개발하기 위해 여성건강에 대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References

Ann, H. J. (2003). *Study on marriage couples of international marriage-couples of Korean men and Philippine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dang University, Muan.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 117-124.

Han, J. Y. (2002). *Study on the marriage satisfaction of Korean-Japa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 Moon University, Chonan.

Han, K. Y. (2007a). Conditions and problems for immigrant women in Korea, *from http://www.wmigrant.org*

Han, K. Y. (2007b). Conditions and problems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from http://www.wmigrant.org*

Hong, K. H. (2000). *The gender politics of migration viewed through marriages between Chosun-jock(Korean-Chinese) women and Korean 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im, S. N. (1998). *A Structural model for quality of life in women having hysterectomies.*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im, T. H., Kim, D. B., Kim, M. H,. Lee, Y. J., & Kim, A. S. (1998). A study of the quality of life for the aged. *J Korea Geront, 8,* 150-169.

Kim, S. I. (2007). Life of married Korean men and immigrant women after counseling, *from http://www.wmigrah..org*

Kim, M. J. (2003). *Power, gender and motherhood in*

Philippine rural village.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Marriage rate for Korean men and foreign women; *Population movement study (Japan, China, America, etc) from http://Koisis.nso.go.kr*

Choi, E. S. (1992). *The effects of pre and post operative education with both wives and husbands on the women's adaptation undergoing a hysterectomy.*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Lee, K. S. (1999). *A study of couple conflict within international - married family - focused on Korean and Japanese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Seoul.

Lee, H. O. (2003). *A study on the social supports for the Japanese women getting married to Korean men-Focusing on Buyeo, Cheongyang and Gongju-.*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Daejeon.

Lee, M. S. (1997). *The subjective of quality of life of Korean workers and associated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MBC (2003). International marriage, Brides caught in a trap. *PD Pocketbook Television Broadcast,* April 15.

Park, H. S., & Lee. K. J. (2007). A study of the health behaviors, physical function, and life satisfaction for elderly women. *Korea J Women's Health Nurs, 13*(2), 115-122.

Park, J. S. (1982). A clinical study on communication conflict in Korean-American marriage: Toward establishing a social work practice theory. *Korea J Social Welfare, 4*, 1-13.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 Marriage and Family, 38,* 15-28.

Seol, D. H., Kim. Y. T., Kim. H. M., Yoon. H. S., Lee. H. G., Im. G. T., Ju. Y. S., & Han. K. (2005. July). A study on the conditions of international marriages for immigrant women. Report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ort of Ministry of health & welfare),* Seoul. No. 11-1460000-002610-01.

Song. S. J. (1975). *Inter-merital conflicts: A study on Korean females married to U.S. husband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Thanh, H. M. (2005). *A study of international and area marriages between Korea and Vietnam after 1992.*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Yoon, H. S. (2004). Conflicts and adjustments of foreign wives married to Korean men: Filipina wives in rural korea. *J Local History and Culture, 8*(2), 299-339.